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6점)

- 1) 코로나禍による長期休校を機に浮上した「9月入学」の導入見送りが決まった。一部の知事が支持し、つい3週間ほど前には首相も有力な選択肢と踏み込んだ発言をしたが、機運がしぼむのは早かった。思いつきで動き、国民を振り回す。そんないまの政治の病が、ここでもあらわになった。
なぜ9月入学か。口火を切ったのは高校生たちだった。授業と学園生活の空白を取り戻す良い手立てはないか。懸命に考えて提起したもので、その訴えは多くの人の胸に届いた。しかし実行に移すとなると、やり方によっては児童・生徒数が例年の1.4倍に膨らむ学年が出てくる。それに見合う教員や教室の確保が必要で、保育園にも数十万人の待機児童が生じる。国・自治体の財政や家計の負担は総額7兆円に及ぶ。研究者らが示した試算で問題の大きさがあぶり出された。
くらしと経済の維持に巨額の財政支出が求められ、学校も感染対策に忙殺されている。社会を根底から変えるような大改革に取り組める環境ではとてもない。
自民党は協議自体は続けるべきだと提言している。たしかに秋入学にはメリットもあり、ここで打ち切る必要はない。ただしその際は、さまざまな分野の専門家や教育・子育ての現場をよく知る人を交え、長い年月をかけて積み重ねてきた議論と知見を踏まえる必要がある。(10점)

- 2) 21世紀は情報通信技術がめざましい勢いで進歩している。情報技術とこれまで考えてきた説得力が密接な関係にあるのだから、当然これからの説得力はこの新しい手段にいかに取り組んでいくかということが課題になる。それを考えるには、まず人間がどのように情報を扱ってきたかについてさかのぼって見る必要がある。人間と情報の歴史は、人々が自分の周辺の自然の変化や出来事を見たり聞いたり、また、それをもとに考えて行動する社会をつくり出してきたことから始まる。その中から社会慣習や文化が生まれてきたわけだが、当初、おそらくお互い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身振り手振りで行わ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る。それが、あるときとうとう言語で抽象化することに成功した。これは情報通信という立場から見れば、大飛躍である。そして、その言語メディアへと発展していく。人間の口から発する言語はその場限りで空中で消えていく。そのために、記憶力の優れた人を「語り部」として養成し、彼らを媒介にして重要な情報を次世代へ伝え、歴史の伝承をはかっていたのである。だが、いくら超人的な記憶力をもっているうちに誤認や勘違いが生じ、正確な伝達伝承が行われていないことに気づいた。何かもっと有効な手段はないかと人々が願い、模索して発見したのが文字である。事象、感情を文字という記号で記録するという大発明に成功した。(8점)

- 3) 「健全なる精神は健全なる身体に宿る」といわれている。ところが年をとってくると、身体健康にも支障が出てくる。そこで、精神が健全である状態を保つことができなくなる危険性が生じる。このようなときが勝負のしどころである。身体健康の足りないところを精神力で補っていく気構えを持たなくてはならない。ここでは、諺にいう「病は氣から」を信じるのである。精神力で身体を左右することは、ある程度可能である。要は、いわゆる病気というカテゴリーに入ることが自分の身に起こったときに、氣に病んで悩むか、それとも、あまり気にしないで年相応の自然な成り行きとして受け入れるかという問題である。悩んでも何らの解決には至らないことについては、それを人生の過程の一つとして容認するのが賢明だ。不老不死は誰でも望むところであるが、人類の歴史でそれを達成した人は一人もない。例外のない規則はないといわれているが、これはその規則の例外の一つである。そのように考えていけば、たとえ病気のいくつかを抱えていても、気持ちにゆとりが生じてくる。
- 「考える」ということが人間にとって最大の利器になる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精神は肉体よりも優位に立つことができるのだ。(8점)

제 2 문. 다음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4점)

- 1) 빅데이터란 인터넷상에서 매일 산출되는 대량의 정보를 말한다. 인터넷 검색 능력이나 트위터상에서의 대화, 휴대단말의 위치 정보, 편의점에서의 구매 능력 등이 일례이다. 이를 분석해서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 능력과 인터넷쇼핑 구매 능력의 조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인터넷상에 표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였을 경우, 경제효과는 연 7조 엔을 넘는다는 시산도 있다. 그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일컬어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나 데이터를 토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
- 국가와 경제계는 이것들을 성장전략으로 적극 활용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사생활 보호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5년 9월에 개정되었다. 예전에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 활용할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12점)

2) 고령 세대에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향상이나, 적어도 현상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 투입의 감소를 보완할 만큼의 생산성 향상이 요구된다. 생산성 향상에는 기술 혁신이 불가결하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장년·고령 세대로 이행한다. 고령 세대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담당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 세대는 종래라면 은퇴하였을 연령에 달해도 늘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여 생산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 노후를 레저 등으로 우아하게 소비하는 것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도 역시 분발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빈곤함을 균등하게 서로 분담하는 사회는 오히려 생활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파탄에까지 이를 것이다. 인구감소사회에서의 풍요로움의 유지는 종전 이상으로 국민 전체가 ‘분발해서 일하는’ 사회의 도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2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